

현장과 시각

민주당 공천개혁 실패했다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무안·신안 등 전략공천 지역 후보자 선정과 여론조사 경선에 모습이 되고 있는 광주 서구갑과 서구를 등 일부 지역의 공천자 확정작업이 남아있지만, 가장 민감한 지역구 공천작업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재승 변호사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작

작된 민주당의 '공천 특검 드라마'에 대해 지역민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과 함께 공천 개혁의 실패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 위원장이 공천 시작과 함께 금고형 이상 부정·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일괄 배제기로 결정하면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됐으나 이후의 공천 과정에서 현실 정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수도권 등에서 열린우리당 출신 현역 국회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재공천을 받으면서 '도로 우리당'이라는 혹평과 함께 '공천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탈락한 현역의원은 31명으로 교체 비율이 22%에 그쳤다는 점은 39%의 현역 교체율을 보인 한나라당에 미치지 못했다.

공심위가 공천 개혁의 시발점으로 내세웠던 '호남 물갈이'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을 단순 지수화 해서 30% 물갈이를 위한 선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 잣대도 애매모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과의 국민 여론조사 경선 도입은 공심위의 아마추어리즘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물갈이가 대상으로 꼽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손쉽게 공천을 받고 오히려 애매한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전남지역 모 의원은 공심위의 공천 결정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악법도 법이기에 독배를 들겠다'고 통탄했다.

광주·전남지역 공천 결과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암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열어가갈 정치적 리더십이나 비전을 가진 인물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4년 후, 8년 후를 기약할 만한 정치적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신 공천을 통해 18대 총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호남 정치권의 침체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역민의 혼란만 깊어가고 있다. /tuim@kwangju.co.kr



4·9총선 전략지역인 서울 중로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후 중로구 경운동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정동영 전 장관과 힘차게 포옹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공천자대회에 참석한 서울 동작을 정몽준 의원과 중로 박진 의원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물들 '총선 전쟁'속으로

손학규-박진, 정동영-정몽준, 잇단 사무소 개소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물급 출마자들이 20~21일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사활을 건 전투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 중로에서 맞붙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의 중진급 재선 의원인 박진 의원은 20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또 서울 동작을에서 열부를 벌일 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정몽준 의원은 21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중로=손 대표는 중로 경찰서 옆 SK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전 장관과 강금실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 1천여 명이 참여해 '세 과시'를 했다. 김영종

전 중로구 당협운영위원장, 양경숙 전 서울시 의원 등 12명이 공동선대부장을 맡았고, 후원회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장을 맡았던 성 공회대 김성수 총장(주교)이 맡았다.

손 대표 측은 '중로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삶의 질 1위 중로, 손학규가 만들겠다'는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한나라당 박 의원 역시 이날 오후 당이 공군회관에서 주최하는 지역구 의원 공천자대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강재섭 대표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인접지인 중구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동작=정 전 장관은 손 대표의 개소식 직전에 사당동 총선대역 인근

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했다. 행사에는 조세형 정대철 고문과 강금실 최고위원, 장 상 전 민주당 대표 등 의원 20여 명을 비롯, 1천명에 가까운 지지자가 몰렸다. 정 전 장관은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는 마음이 되겠다"며 전투의지를 불태웠다.

정 전 장관은 '동작구를 신(新) 교육·정치·경제 일번지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살아온 길이 다르다'며 맞상대인 정 의원의 차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이날 새벽부터 상도동 바다 민심을 집중 공략했다. 새로 맡은 지역구인 만큼 아무래도 지역민들과의 '스킨십'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티베트 시위대 24명 구속

중검찰 "폭력·파괴·약탈·방화 국가안전죄 위반"

중국 검찰은 폭동시위로 불잡힌 티베트 시위대 2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국 시장일보는 20일 세련된 중국 인민 검찰원 부검찰장의 말을 인용,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세련된 부검찰장은 "이들 혐의자의 행위는 국가안전죄를 위반한 것은 물론 폭력 과 파괴, 약탈, 방화 등 중대 형사범죄에 해

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서 "이들은 법을 보호하는 엄숙함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발생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중국 공안기관에 자수한 사람은 19일 오후 3시 현재 156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힐러리, 영부인 경력 과장"

백악관 시절 일정 문서 공개...경선 타격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그간 내세운 최대 강점은 8년간의 영부인 시절 동안에 쌓은 국가경연의 간접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영부인 시절의 경험 또한 새로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클린턴 후보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경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게될 전망이다. 이는 총 1만7천쪽에 걸쳐 2천888일에 이르는 영부인 힐러리의 일일 일정 문서가 공개된 이후 불거진 것이다. 이번 문서 공개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측에서 힐러리의 영부인 경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이뤄졌다.

◇"힐러리의 영부인 경력은 과장된 것"=abc뉴스는 광고를 통해 화제가 됐던 힐러리의 '새벽 3시 백악관에서 울리는 긴급 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주장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공개된 영부인의 일일 일정은 일상적인 여행과 병원 방문, 블러니 랜케이프를 걸었던 캐비어(상어알)를 나누는 식사 일정이 대부분이었다"고 19일 혹평했다.

◇"공개된 일정이 힐러리 활동 전체는 아니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일정이 클린턴 후보의 영부인 당시 활동 모두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NYT에 따르면 실제로 그녀가 자서전에서 밝혔던 1995년 9월 중국 방문 이전에 받았던 정보보고 회의 등은 공개된 일정에 담겨 있지 않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Paknae Young Education' (학내영교육학) featuring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like 'Education' (교육학), 'Early Education' (초등교육), and 'Nursery Education' (유아교육). Includes contact info: 529-0090.

Advertisement for 'Dae-yang San-ri' (대양산리) featuring 'Sae-sa-sang' (제사상) products. Text: '제사상의 백을 이어가는 대양산리에서 사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Contact: 061-383-8283.

Advertisement for 'Gukje Wosik San-ri (G)' (국제외식산업(주)) featuring 'Sky Coffee' (스카이커피). Text: '스카이커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Contact: 052-262-2278.